

전총련 향한 ‘나침판 점검’

제6기 전대협 총회 지상보고

I. 총회일정

제6기 전국대학대표자협의 회(이하 전대협) 총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인하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전대협 소속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일반학생, 총회사수대등 약 3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총노선 결의, 의장선출, 문화행사등을 중심으로 열려진 가운데 올해 총노선으로 민주정부수립, 범정학련건설, 전대협의 전총련으로의 기반 강화안등을 채택하였다.

‘전대협총회 사수를 위한 사수대 사전 결의대회’와 ‘전대협 사수대 발족식 및 개막전야제’를 서두로 시작된 이번 총회는 9일 오후1시 인하여 강당에서 대의원과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석(전국연합공동의장·전민련 의장)과 오갑성(전노협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대협이 군부재자 투표 진상 규명과 민주정부 수립투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참석자들은 올해는 민주정부수립의 갈림길이라고 밝히고 이번 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의 문제인식을 통해 통일적인 노선 확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개막식뒤에는 ‘애국인하 뽀빠기 한마당 및 거리음악제’와 ‘전대협 총노선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마지막날인 10일에는 제6기 전대협의장선출 및 옹립식을 갖

고 태재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6기 전대협의장으로 선출하였다. 태재준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92년에 민주정부 수립과 전총련 건설을 꼭 이루어내고 전대협을 백만화도의 조직으로 세우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서총련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홍근 서울캠 퍼스 총학생회장과 용성총련의 장에 선출된 최만식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이번 총회에 참여하였다.

II. 총노선 해설

올해 전대협의 총노선의 기초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해와 고민에 기초를 두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불어 지난 14대 총선평가와 민주정부수립, 전총련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민족·민주 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점차 고도화·다양화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편으로는 정치허무주의를 유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회학교법 개정, 학원안정화 대책등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탄압사태가 학생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14대 총선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와 비판의식의 결과로 여소야대가 이루어졌지만 국민당의 부상은 국민들의 보수화

이러한 평가에 기초한 올해 총노선을 살펴보면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민주대연합 투쟁, 통



○제6기 전대협 의장으로 선출된 태재준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모습

총노선, 민주정부·전총련 건설 결의해 학생 고민·생활에 기반한 학생회 중점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민주당내 재야출신 후보의 원내진출과 민중당의 실패는 민주체력의 단결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운동의 다른 계층으로 확대, 전총련 건설을 위한 기반강화로 볼 수 있다. 먼저 민주대연합안을 보면 지난 총선결과 국민이 힘으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변혁에

성공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불매 보수대연합의 본모습을 알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민주대연합 투쟁으로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자국중심의 체제로 세계를 개편하려는 패권주의가 남북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합의서채택, 비핵화선언등을 축으로 정권의 반통일성 폭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은 남북의 자주적 교류, 비핵군축에 대한 남북합의,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인사 석방등을 대증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남·북·해외동포로 구성되는 범정학련을 구성하기로 하고 편지교류사업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세째로, 올해는 전총련 건설의 발판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과·단대·지역 학생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특히 일상생활, 학문투쟁에 부합하기 위한 학생회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회의 총노선 논의는 각 사안마다 이견이 많이 나타나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반대의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수렴하는가 하는 것은 남은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앞의 논의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학생회와 학생간에 떨어진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가도 중요하게 부각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태재준 의장이 이번 총회가 ‘총선투쟁을 정리하고 올해 일의 방향을 내어오는 자리’라고 밝혔듯이 앞으로 말과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써 문제를 극복하는 학생회와 학생간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송보영기자〉



○전대협 총회가 인하여에서 열려진 가운데 총노선 수립·문화행사 등이 있었다

한주메모

- ▲4. 11: —이치문중위 불기소, 국방부 방첩서 군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안기부원 흑색선전물 사건 축소 의혹, 검찰 소속간부 극비소환 조사 끝내.
—재야 17개단체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출범, 양심수 석방요구.
- ▲4. 12: —러시아의회 열전비상대권 발발, 정부 내각총사퇴로 대응, 경제개혁 방해할 때는 국민투표 요구할 듯.
—이란총선 온건파 압승, 라프산자니 개혁노선 강화할 듯.
—공산협 ‘군부정투표’ 제보30건 국방부에 전달하고 진상조사 촉구.
- ▲4. 13: —한투회 43년만에 ‘백범암살 배후’자백, 김창룡 당시 방첩대장 지시로 단장비대등 이유로 제거지령, CIA개입 의혹.
—강기훈씨 석방대책위 ‘검찰서 김기설씨 군복무때 필적 입수하고도 은폐’ 주장.
—한·중 은행사무소 교환, 상반기중 베이징·서울에 외환·중국 은행 개설.
- ▲4. 14: —헌법재판소 국보법 ‘구속연장’조항 일부위헌 결정, 찬양고무 불고지 피의자 대상.
—일, 우익단체 시위대 한국 총영사관 난입, TV일방 암살장면 방영등에 항의, 독도한국경비대 철수도 요구.
- ▲4. 15: —UN ‘리비아제재’발효, 항공기 이착륙 봉쇄령, 무기금수등, 카타르 국가총동원령 선포.
—인투회씨, 장택상 당시수도경철정장 등을 백범암살 배후로 지목, 특무대수사 받을 때 배후 묻지 않았다고 밝힘.
- ▲4. 16: —白지암살,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과 친일파 합작품, 당시 헌병사령관 장충서 회고록서 주장.
- ▲4. 17: —대학가 대구모 4·19집회, 전국81개 대학에서 부정선거 규탄 결의행진, 전국연합서도 추모행사 가져.

빈곤한 ‘사학’ 무관심한 ‘국고’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1)국고 보조금

최근 양 캠퍼스의 등록금투쟁(이하 등투)이 한창 진행중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등투는 지난 3년간의 학교와 학생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합의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학교는 18%라는 인상율로의 일방고지로, 또한 학생측은 총학생회 구좌로의 남부과 등록금부 및 총장실 점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등록금 투쟁은 88년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매년 개강이후 각 대학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해 왔다. 이가 이슈화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학교측에서는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며

학생측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의견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대한 학교측의 의견은 매년 오르는 물가와 임금의 인상

살펴보면 학교측의 경우, 열악한 재단의 재정상황과 극히 미비한 국가보조는 학교의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

국가의 개인당 공교육비 부담을 낮아 학교와 학생공동해결 모색 바람직

물을 감안하면 등록금의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으며 이에대한 학생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단전입금의 확충과 국고보조금의 확충에서 이의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황이며, 학생들의 입장 역시 등록금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에 대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외화년도 등투에서부터 학생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등투에 대한 새로운 명칭이 교육

재정 확보투쟁(이하 교재투)라 할 수 있다.

이는 올바른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대입관계를 학교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되어왔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받는것은 비단 학생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 수혜 혜택을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도 그 부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조차 국립대·사립대의 비율이 556:1이라는 큰편차로 분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1인당 소요되는 공교육비를 보더라도 미국8백75만원, 일본6백29만원, 서독이5백52만원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금액이 1백30만원밖에 되지 않아, 그 실상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게한다.

이에대한 학생들은 이번 등록금 협상시 학교와의 ‘대정부 공동선언서’를 채택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압력이 내외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그리 쉬운일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학교당국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될것이며, 국가역시 교육세를 다른용도로 전용하지않고 과감한 국가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에대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엄홍준기자〉



현 장 취 재

‘총액기준 5% 임금억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일 본고 크라운관에서는 IL0기본조약비준정착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경제위기, 물가불안의 책임을 노동자임금인상에 돌리고 있음을 규탄하고, 임금 한자리수 억제정책에 잇달아 총액임금제도를 실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집회후 청량리까지 가두선전전을 벌였다.

〈서동국기자〉

을 남기려고 하는가!

특히 해나기도 했습니다.

대우가 이처럼 개척하기 힘든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를 선택해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인간외교의 창병역할을 해내고자 함이며 나아가 한겨레의 가장 큰 망인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대우가 선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그 그 대우가 창립 이후 꾸준히 지켜온 ‘공존공영’의 정신 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기업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기업 진출해 있지 않은 미국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술의 나라, 일본 입성(入城)

대우의 해외개척사는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뿐 아니라 선진국 각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우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최초로 일본의 최첨단 전자통신 연구단지인 소프트 리서치 파크(Soft Research Park)에 자체적인 연구센터를 만들게 됨으로써 기술보호의 벽이 세계 최고 높다는 일본에 대우의 기술 잠재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미국 실리콘 밸리와 구 소련의 연구소 함께 국내외 연구기술과 해외의 정보가 만나는 대우 기술창조의 진 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캐나다와 호주에 대규모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 선진 각국과의 대등 경제협력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대우는 현재, 중국의 복주(福州) 냉장고 공장 설립, 헝가리의 은 설립, 북한의 남포공단 조성 등 공존공영을 위한 합작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43개 투자법인 운영과 더불어 39개의 신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전의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해외시장 개척이란 한마디로 시작도 끝도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나라의 민속, 풍습,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술이 능한 인도시장 같은 곳을 개척하기란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요. 인도에서 일한 지 5년, 저는 듯한 더위와 풍토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생각났습니다. 저보다도 더 열악한 오지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많은 우리 대우가족들의 소명(召命)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요.”라고 지사생활을 얘기하는 (주)대우의 도정원 과장 — 도과장의 말처럼 오늘의 대우가 있기까지 지난 44년째 대우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대우인들의 땀방울이 알알이 스며 있습니다. 1980년대초, 북에멘 지사에 근무했던 김승현 대리(현재 대우자동차 부장)도 살아있는 신화를 갖고 있는 한 사람. 김대리는 그곳 주민들이 알려주에 예배할 때 썩는 ‘가트’라는 풀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가트를 제일 잘 썩는 외국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구역질을 참아가며 썩고 또 썩어, 마침내 압둘라라는 거상(巨商)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김대리의 가트 썩는 품이 예뻐인들 보다 더 우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얘기는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쌓여있는 수많은 일화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89년 파나마 사태 때 살인과 약탈, 총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사의 상품창고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채 목숨을 걸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포박 버틴 파나마의 대우인들, 무더운 땅벌 아래 입찰에 늦지 않으려고 온 몸이 소금기가 허형계 기도록 달리는 바람에 아내가 아직도 음식에 소금남기를 꺼리다는 대우인, 전쟁터를 누비며 낯선 땅을 개척하다가 머나먼 타국에서 소라처럼 대우인... 이처럼 열사의 땅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로 세계를 놀라게한 대우인들. 끊임없는 창조적 연구개발로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우리 기술인들. 밤을 밝혀 서류와 씨름하면서 단 한 톨이라도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눈을 부릅뜨는 대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몸을 아끼지 않는 ‘도전의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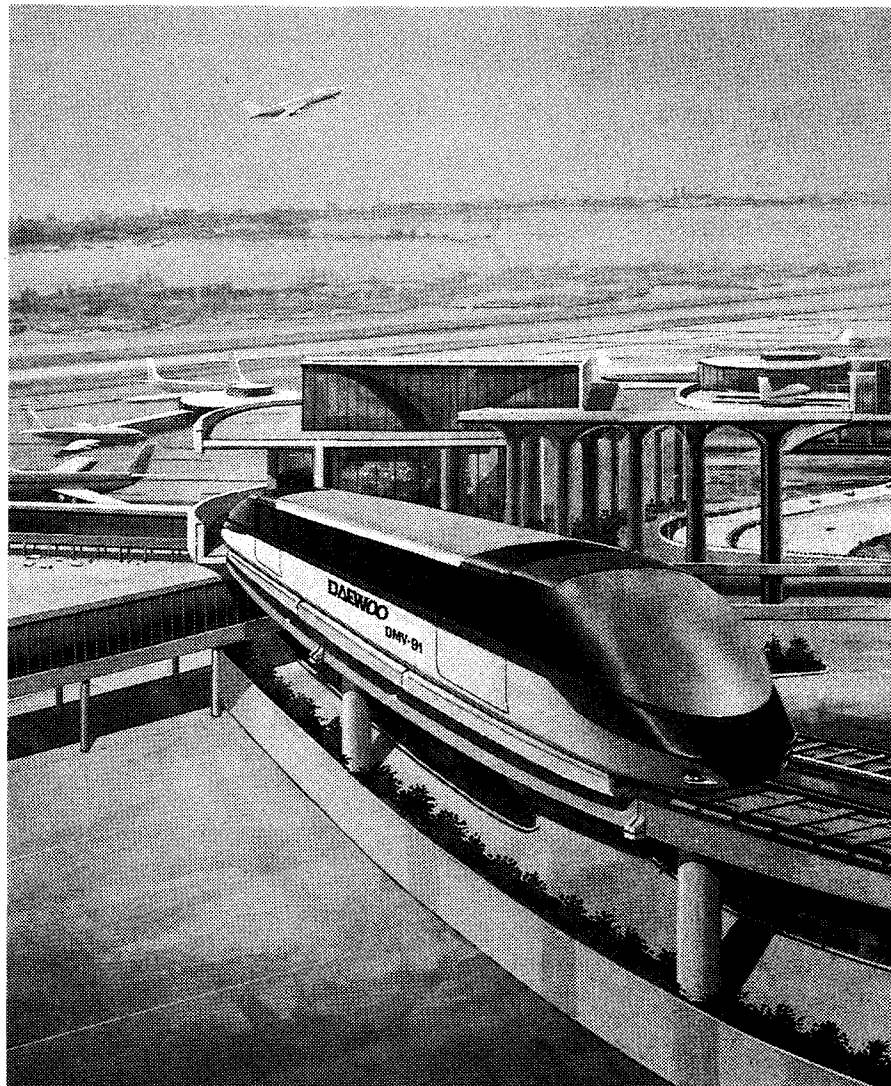
더 큰 가슴, 더 넓은 가슴,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이며, 대우가 변함없이 추구해 가고 있는 국제화의 길 — 좁은 국토에 머무르지 않고 거대한 국제시장에 도전해온 해외개척의 의지,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의 행동철학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맘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 도전, 희생의 대우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역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대우의 연면한 정신(精神史)! 그것은 바로 더 큰 가슴, 더 넓은 가슴, 더 뜨거운 가슴으로 세계를 안으려는 여러분, 이 땅의 대학인들의 열정에 맞닿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한결같은 짧은 기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우, 여러분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 우리에게 위험은 기회일 뿐이며, 꿈이란 실현되기 위한 청사진에 다름아니다. (사진은 꿈의 운수수단이라 불리는 자기부상 열차. 대우가 산학연 합동의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해 92년 7월 40인승이 선보일 예정이다)